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만민중앙소식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72호(구392호) 2008. 8. 24.(격주간)

## 은혜와 감동, 열정으로 어우러진 찬양의 향연 ‘GCN 파워 프레이즈 시즌 2’



### 가장 소중한 것

만일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 가시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광대한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관양쪽에 구멍을 내고 손을 내밀게 하라’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에는 신령한 몸을 입은 영혼만이 그곳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금은 보석을 가져 간다 해도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가져 가면 천국에서도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만큼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글· 이재록 목사  
한국일보 연재 중인 ‘길’ 칼럼에서

탁월한 기량과 넘치는 은혜로 기독교 찬양문화를 선도하는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파워 프레이즈 시즌 2’ 서막이 올랐다.

‘GCN 파워 프레이즈 시즌 2’ 공개 녹화가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세 시간 동안 우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에서 있었다. ‘GCN 파워 프레이즈 시즌 1’이 2005년 12월 첫 녹화 후 25회가 방영된 후 GCN 시청자들은 물론, 세계 곳곳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다시 열린 것이다.

이수진 목사가 인도하는 GCN 파워 프레이즈는 성결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연주, 워십, 특설무대와 조명 등이 한 데 어우러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느끼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자아내며, 심령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천국을 더욱 소망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상 문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선정성을 지향하는 이 세대에 찬양예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GCN 파워 프레이즈는 기독교 찬양문화의 새 지평을 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혜와 감동, 열정으로 어우러진 ‘GCN 파워 프레이즈 시즌 2’는 GCN 시청자들은 물론 이 찬양예배를 사모하는 국내 수많은 성도의 삶의 변화와 찬양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GCN은 우리 교회 부설 만민 TV를 비롯한 세계 기독교 방송사들의 네트워크로 2005년 10월 개국된 이후, 생명력 있는 말씀, 권능의 역사, 은혜와 감동을 안겨주는 찬양예배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욕 공중파 채널 17번, 27번과 만민 TV 위성 방송을 통해 뉴욕,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송출되며 앞으로는 미국 전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송출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하·가나안·청년·비블·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성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3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 만민중앙소식을 받아 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 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 - 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      |                   |
|------|-------------------|
| 국민은행 | 362-21-0201-106   |
| 우리은행 | 072-255732-02-201 |
| 농협   | 100072-52-061722  |
| 우체국  | 012419-02-047269  |



당회장 이재록 목사

# 흠 없는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 14:4-5)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시 147:1). 이미 태초부터 천국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세세토록 경배드립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닮은 자녀들이 중심에서 올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삼상 16:23 ; 대하 20:21-22 ; 행 16:25-26).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요 4:24).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는 찬양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몸과 마음 자세는 무엇 일까요?

## 1.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인 실력이나 외모도 겸비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할 것입니다. 이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세상 풍속을 좇아서 안 됩니다.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나 육적 모습도 온전히 갖추기 위해 이렇게 한다’ 하지만, 혹시 이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 세상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세상 것을 접했다 해도 믿음이 약하면 세상에 물들기 쉽습니다. 세상 것을 접하고 취할수록 점점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창법과 연주법, 음악 스타일 등을 따르고, ‘이런 옷 스타일, 머리 모양, 화장법이 유행이더라’ 하면서 따라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어떤 모습이 단정한지 잘 알지만 유행을 좇아 온갖 세상 풍속에 물들어 가지요. 찬양하는 입술로 세상 유행어를 말하고, 주 안에 교제할 때에도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취하고 바라보는 일체를 엄히 금하십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뒤로한 채 육적인 것, 외적인 것에만 마음 쏟는다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절대 참이 될 수 없습니다(요일 2:15). 그렇다고 세상과 아예 단절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지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의 것을 접하더라도 정복하고 지배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늘 깨어 불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도 없는 영의 사람이 될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8:13에, 사도 바울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혹시 누가 실족하지 않을까 하여 절제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여린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절제하면 그만큼 값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 2. 주님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계 14:4).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므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분야별로 많은 일을 감당하며, 관련 지식도 충분히 쌓았다고 해서 ‘나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내가 배우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게 더 좋은데’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합니다.

예컨대, 단에서 특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흐름에 맞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뜻과 의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아

름답고 밝은 찬양, 소망적인 찬양, 세상적이지 않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들었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곡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분위기의 곡이 더 은혜롭고, 음악적으로도 더 좋은데’ 하거나, ‘요즘의 흐름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찬양을 선택하고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불순종하는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육적으로 다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쁘게 받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22에, 사무엘이 거둬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21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 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그리했고, 물고기를 낚아 돈을 꺼내오라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범사에 온전히 순종하는 흠 없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 3. 입에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하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의 큰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어떤 작품을 올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때 어떤 사람은 ‘역시 어느 팀에서 맡아 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때 제 의견대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며 찌르는 말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 부분에서 다른 팀이 비협조적이라 이런

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기술과 실력으로 화려한 작품을 이뤘더라도 화평이 깨진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지요.

이는 같은 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 까지도 대신 회개하며 책임지려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특히 머리라면 더욱 이런 마음이 되어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다 보니,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납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 그때에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진실함을 보고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요(잠 12:19). 내가 높아지고자 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신 이유는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흠 없는 자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허락하셨고 그는 이런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을 벗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전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더라도 변화할 것을 기대하여 부르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진실하게 고백하고 힘써 돌이켜야 하며, 그럴 때 진정 변화하고 날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 없이 성결한 사람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에 권능이 담기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죽어 가던 사람이 영적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므로 흠 없는 자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 드리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찬양의 본질과 자세

음악은 희로애락을 느끼게 하며 삶의 활력소가 되어 준다.  
 이처럼 선한 용도로 사용되면 많은 유익을 주지만 자칫 악용되면 수많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음악은 영혼을 살찌우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찬양의 능력으로 영혼이 새로워지며 응답과 축복받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 은혜에 감사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찬송 중에 거하시느(시 22:3) 하나님께서는 찬송, 곧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위로와 기쁨을 주며(시 105:2-3),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삼상 16:23),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며(행 16:25-26)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는 등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냥 찬양한다고 해서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때 영육간에 풍요로워질 수 있다.

### 음악의 시초는 하나님 찬양

시편 69:31에는 찬양 드리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에 그리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렸고, 그것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곡물가루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 제물 중 가장 귀한 황소의 제사보다도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다.

태초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왔고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드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음악의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 루시퍼는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항상 그 곁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권세와 위엄도 주어지고 다른 천사들과 달리 인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무수히 흐르면서 점차 교만이 싹트자 하나님께서 원래 주었던 마음이 변질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퍼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때가 이르러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고 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아름다웠던 루시퍼는 타락한 후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 루시퍼와 음악

특별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온몸에 섬뜩한 문신이나 장식을 달고 마구 뒤엎킨 머리를 흔들며 찢어지는 듯한 악기의 소리와 괴성으로 자기도취되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이상한 가사와 멜로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심한 일탈 행동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타락하기 전 찬양을 담당한 루시퍼가 세상 음악을 사주해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 가며 사람들로 부터 숭배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음악이란 가사나 곡 또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등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음악을 말한다.



GCN 파워 프레이즈 공연 중

세상 음악 중에서도 세상사를 아름답게 표현하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녕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굳이 세상 음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세상 음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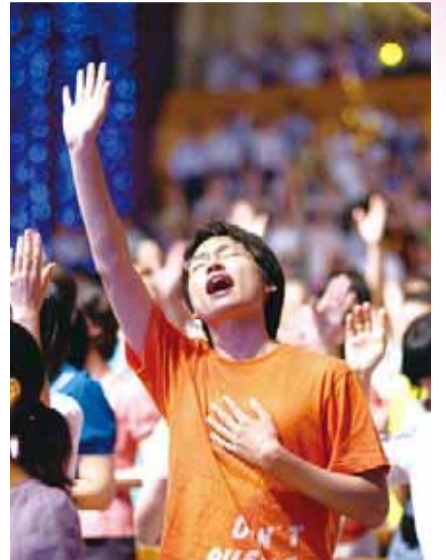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혹여 빼앗거나 세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음악이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음악의 시초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찬양 듣기를 즐겨하며 그

입술에서는 세상 음악이 아닌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다.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의 기교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순종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찬양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며 창조주 되심과 그 위대하심을 목소리와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7년 환난 중에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은 주를 위해 순교할 만큼 진리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음성처럼 '많은 물소리도 같



답하신다.

###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찬양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양은 옥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변함 없던 바울과 실라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깊은 감옥에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질 때 천국에서도 그들의 찬양이 울려 그 향은 하나님 보좌를 진동시켰던 것이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 유다를 침공해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해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케 한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해 나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적군끼리 서로 싸워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났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영혼이 잘되므로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며, 찬양하는 영혼 위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 주를 향한 '하나의 힘'

## 2008 하계수련회

전 교인이 참여하는 2008 만민 하계수련회가 각 기관별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치러졌다.

전국 남녀장년은 8월 4-6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가나안·대학·청년·바울·마리아·빛과 소금 등 6개 연합회는 8월 4-7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횡성군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각각 수련회를 가졌다.

전국 남녀장년 수련회는 '공간을 체험케 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희진 목사의 교육과 체육대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의 인도로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영의 공간을 알게 해 준 잠자리

이와 별도로, 중국교구는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청각장애우선교회는 목포대학교와 무안만민교회에서, 해외교구는 무안만민교회에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각각 수련회를 치렀다.



'공간'을 주제로 한 교육이 한창



'주의 영광 위해 달리자!'

응답의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6개 연합 수련회 첫날에는 각 선교회 행사가 있었고, 둘째날에는 체육대회에 이어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성령충만기도회'가 진행됐다. 체육대회에서는 대학선교회가 2연패를 했고 응원상은 가나안선교회에게 돌아갔다. 셋째날, 이희진 목사의 교육과 캠프파이어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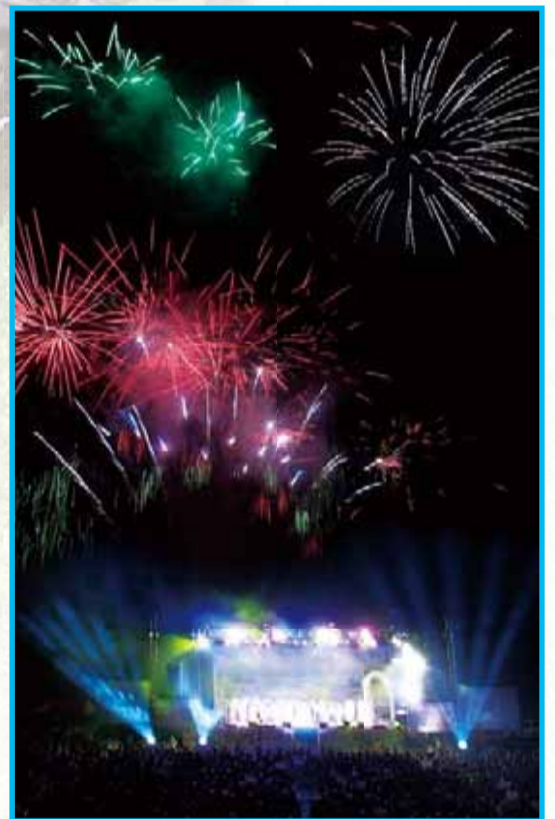


'나의 열정을 오직 주님께'

장정미 운영위원장은 '모든 과정을 화평 가운데 이루어준 일꾼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체 수련장이 마련되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 일본, 벨기에,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도 동참해 은혜를 나누었고, 벨기에 브뤼셀 만민교회 '디보시옹(Devotion)' 팀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디보시옹 팀의 크리스텔 자매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젠 더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는데, 비로소 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라고 말하며 수련회의 감동을 되새겼다.



하나 된 힘을 확인하며 쏘아올린 소망의 불꽃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서부산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새대구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대전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동광주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남울산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안성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공주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서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아산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1-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1-60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원신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 ☎031)840-2906, 019-251-3149